19114 최우현

선생님께서 제 추천서를 써 주셨으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에서 저를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년까지는 선생님의 수업이 없었지만, 대신에 작년 한해동안 심화 알앤이와 창의 알앤이를 지도해 주셨고,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께서 저에 대해서 이해하실 만한 기회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학년때에는 직접적인 접점은 없었지만 종혜쌤께 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화 알앤이, 창의 알앤이, 그리고 졸업논문까지 총 3개의 연구를 지도하시면서 제가 어떤 성향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구를 진행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온라인 기간에도 계속 줌으로 미팅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했었고, 학교에 나올 때에도 기존에 배정된 알앤이 시간 외에도 종종 알앤이를 진행 했습니다. 학습 12차시, 그리고 필요할 때는 새벽에 기숙사에서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심화 알앤이와 창의 알앤이 모두 둘 모두 결과가 좋지는 않았고, 성공한 연구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무관하게 제가 연구에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하고, 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학기가 끝나고 추천서를 써 주실쯤 이면 정보과학 프로젝트와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 수업이 끝나고, 그러면 추가로 두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선생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정보과학 세미나 1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시험이 가까워져도 적지 않은 시간을 쏟았고, 앱 뿐만 아니라 서버까지 만드는 등 여러가지를 한 만큼 이번 정보과학 프로젝트와 시뮬레이션 프로젝트에서 진행할 프로젝트에도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선생님께서 지켜 보실 수 있으신 만큼 추천서를 지금보다 더 많은 쓸 내용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졸업 논문을 지도해주시면서도 쓸 내용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구를 계속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미 수차례 수정과 훈련을 반복하면서 실험한 결과가 있고, 또 앞으로도 이를 적지 않은 횟수 반복할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새로운 관련 논문이나 기술에 대해서도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드디어 좋은 결과를 가진 논문을 쓸 수 있다면, 단순한 열정 외에 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수월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연구를 오랜 기간동안 지도해 주셨고, 또 여러가지 면에서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종화 선생님께서 제 추천서를 꼭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